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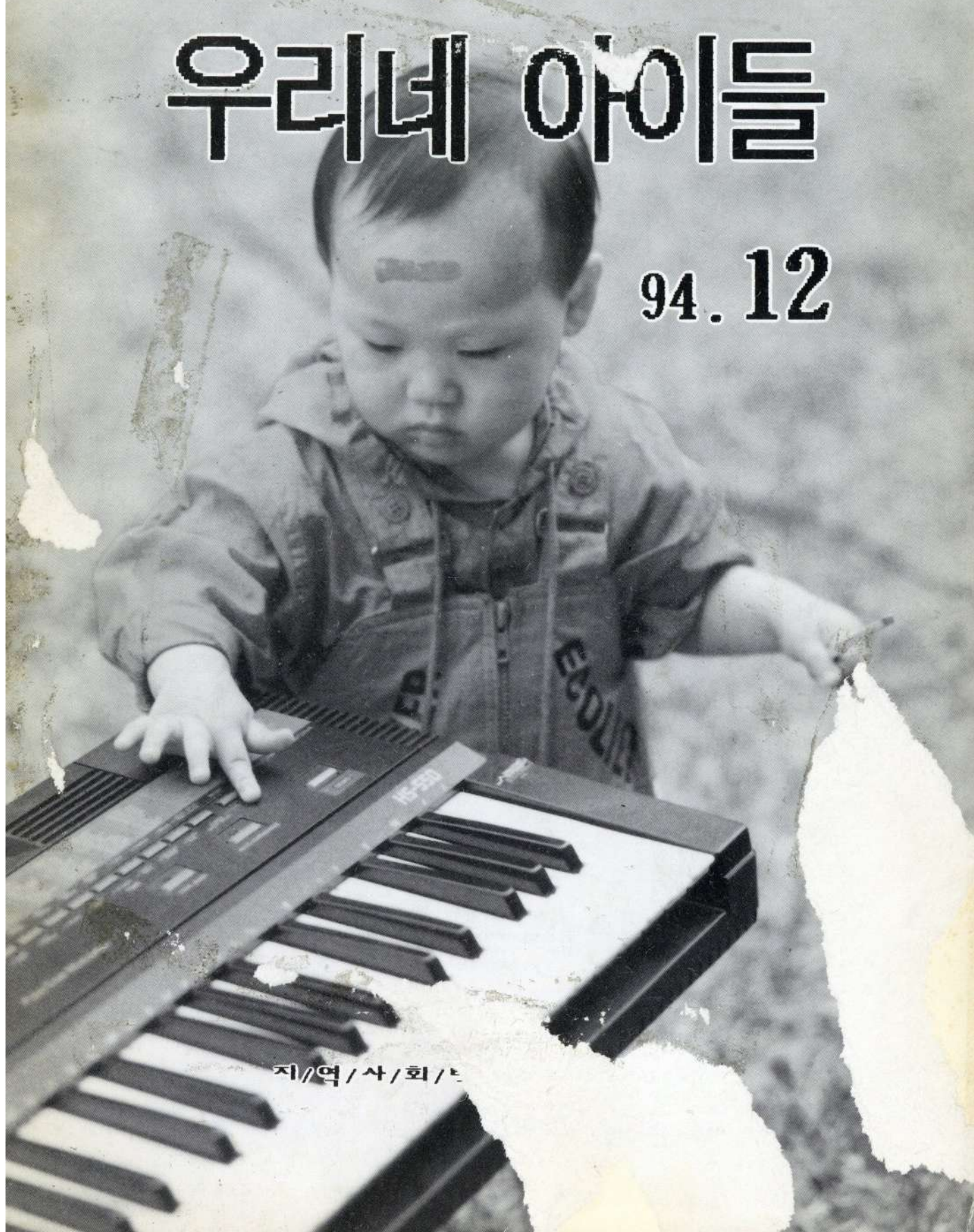
옹기종기 전정숙

탁아월동의 길잡이 1994년 12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26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12

지/역/사/회/보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4년 12월호 첫발행 92. 5. 25. 통권 26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 12

- 영아 교육의 식단(1) 영아학이소모임
● 건강하게 살시다 / 18
● 주스이거와 저주 반신(2)
● 세남을 여는 사람들 / 20
● 소금이 되고 허삼이 되는 단편기
● 뽕글이 이야기 / 24
● 영아들은 어떻게 다양한 세지는 단편연편 권영주
● 서경 / 28
● 우리 것을 먼저 보아야 남의 것이 보인다
●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을 읽고 박선영
● 좋은 그림책 소개 / 29
● 사자말죽이 / 30
● 역사와 지금으로 34년 권영주
● 우리네 아이들 / 32
● 주스러기 선교회와 역사와 35년 권영
● 그 안에서 키워보는 아이들의 존재
● 글다양 / 34
● 적적소행곡 박기영
● 우리들의 조수익 박영희
● 희망에 관한 / 35
● 소서과 소서 / 41
● 비록시장 / 43
● 전집부여시 / 44



〈표지사진 설명〉

전대사태가 발생한 이년
이와 함께 함께 반겨보고
있다.
누구나 복을 얻고 있는 것을
공공의 하고 우리끼리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통권 26호〉

짜
임
새



〈표지사진 설명〉

신디사이저가 생소한 어린
이가 슬쩍 한번 만져보고
있다.
누구나 처음엔 모든 것을
궁금해 하고, 두려워하듯이...

- **일하며 생각하며 / 2**
 결코 침체하지 않을 그대들에게... 이미경
 - **기획 1 / 4**
 줄리엣 미첼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장미경
 - **기획 2 / 9**
 영아 이유식 식단(1) 영아탁아소모임
 - **건강하게 삽시다 / 18**
 유소아기의 피부 발진(2) 이흥진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20**
 소금이 되고 화살이 되는 인권지기 주혜민
 - **발굴이야기 / 24**
 얼어붙은 땅위에 당당히 외치는 인권선언 편집부
 - **서평 / 26**
 우리 것을 먼저 보아야 남의 것이 보인다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을 읽고 박성연
 - **좋은 그림책 소개 / 29**
 - **시사말뚝이 / 30**
 역사의 되돌이표 94년 편집부
 - **우리네 아이들 / 32**
 부스러기 선교회의 역사와 95년 전망
 - 그 안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문제 -
 - **글마당 / 34**
 탁아소별곡 아기자람터
 우리들의 목소리 이경희
 - **탁아계 풍향 / 38**
 - **소식과 소식 / 41**
 - **벼룩시장 / 43**
 - **편집부에서 / 44**

■ 일하며 생각하며

결코 침체하지 않을 그대들에게...

이미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연이 지탁연과 정식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아마 1990년 지탁연이 여연의 회원단체가 되면서 부터인 것 같다. 그전까지만 해도 지탁연은 민중운동과 지역운동에 대한 귀속감이 많았고, 여성운동과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운동 안에서는 여성해방을 위한 중요 행동강령에는 의례 '육아의 사회화' 즉 요즘 말로 하면 '공동육아'가 제창되곤 했으니, 공동육아 운동과 여성운동은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이 둘은 만나자 마자 의기투합하여, 여연은 1991년과 92년 두 해에 걸쳐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여연의 중요사업으로 정해서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나는 지탁연 임원들과 교사들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매우 훌륭한 활동가들이라는 걸 강하게 느꼈다. 당시 다소 추상적으로 '보육의 질'만을 주장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정부 공무원들과의 대토론회, 대논쟁에서 지탁연은 언제나 구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깨고, 마침내 그들을 설득시키곤 하였다.

처음 지탁연은 순전히 헌신적인 자원활동가들과 후원자들 도움으로 산동네나 공장 주변에서 탁아방을 시작하였다. 공무원이나 일부 교수들 눈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시설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천사의 집'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가슴을 저미도록 아프게 한 혜영이, 용철이도 이런 보잘 것 없는 탁아소라도 있었더라면 그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97년도까지는 보육을 원하는 전체 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제 보육은 특정 가난한 계층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일하는 여성 모두의 시급한 문제로서 대두되었다. 이제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난한 계층부터 시작해서 전체 아동들에게 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일,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에 보육시설 수는 늘지만 부모의 부담만 커지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바로 잡는 일, 또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 탁아교사의 임금, 탁아 시설의 수준을 보장 받아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아이들을 심신으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는 일 등이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초기의 자발성에 근거한 소모임, 아마추어 성격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조직도 사람과 같아서 점점 자라고,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제도화의 길을 가는 것이 상례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지탁연은 95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소외계층 아동들에 국한했던 활동에서 공동육아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까지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건설 준비작업에도 지탁연이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당연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벽찬 도약의 도전 앞에서 자칫 지탁연 회원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매우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수많은 창조적 실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탁연이 제도적 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율성이 제한당하게 되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은 창조성과 자발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자발성에 익숙해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숨막히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초기의 자발성에 근거한 소모임, 아마추어 성격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조직도 사람과 같아서 점점 자라고,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객관적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 제도화의 길을 가는 것이 상례인 것 같다. 만약 그렇게 자라지 못한다면,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다가 자연히 소멸하는 식이 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초기의 열정과 헌신이 지속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탁연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연은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20% 여성의석 확보"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탁연은 어느 단체보다도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단체이니 만큼 지방자치 선거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를 정해서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이런 내용을 공약하도록 작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펴나가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탁아교사나 또는 지역에서 발굴된 여성을 후보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돕고, 이후 당선된 이후에도 공동육아 사업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의정감시 운동 등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들은 단순한 보모의 직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민운동가, 여성운동가의 몫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침체되지 않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탁연과 지탁연 활동가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 기획 1

줄리엣 미첼 -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장미경 / 정책연구부

줄리엣 미첼(Juliet Mitchell)은 뉴질랜드 태생으로 영국의 여성해방 이론가이자 운동가라고 한다. 여기에서 살펴본 Woman's Estate(Random House, New York, 1973)외에도 Psychoanalysis and Feminism(Vintage Books, New York, 1975),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New Reft Review 40, November/December, 1966), "Women and Equality"(J.Donald and S.Hall eds. [Politics and Ideology]), The Rights and Wrongs of Women(Harmondsworth : Penguin, Ann Oakley와 공동편집, 1976), What is Feminism?(Oxford : Blackwell, Ann Oakley와 공저, 1986) 등의 저술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여성의 지위]는 이형량과 김상희가 번역하여 1984년에 동녘에서 펴낸 것이다.

1. [여성의 지위]에 나타난 미첼의 입장

미첼은 [여성의 지위]에서 먼저 1960년대 후반에 여성해방운동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여건, 그리고 여성이 처해왔던 특수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10여년간의 여성해방운동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그가 이 책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답보적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해방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의 모색이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분석을 수정하고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는 그에게서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알튀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구조주의적 입장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여성억압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심리학적 견해, 그리고 경제적 모순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에 여성해방은 규범적 이상으로만 머물렀을 뿐 구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부속물로 남아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첼은 여성의 억압을 설명하는 사회주의적 분석의 발전과 급진적 여성해방 의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생산구조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항상 남성중심세계 속에 종속되어 있도록 규정된 노동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또 한가지

여성의 억압상태를 복합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정'이라는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가족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며, 자연적인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기능이고 여성과 가족을 영구화 또는 일체화시키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여성의 상황을 서로 다른 여러 구조들이 결합되어 '초과결정'되어 있는 단일체로 보고,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구조들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여성해방이 성취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이 처한 상황의 핵심 구조들은 무엇인가? 미첼의 분석으로는 그 구조들이란 생산, 출산, 성관계 그리고 자녀양육이다. 먼저 생산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노동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원시사회, 중세사회, 자본주의사회를 막론하고 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육체노동 수행능력이 남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순한 분석에 근거하여 여성의 생산노동에의 종속을 설명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성이 해방될 것이라는 단순한 낙관주의적 견해를 피력한다. 물론 생산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거부된다거나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해방을 위한 전제조건 조차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생산노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가정에서 여성이 받고 있는 억압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미첼에게 있어, 자녀출산은 변함없는 초시간적 현상으로, 즉 역사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생물학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다만 '자녀출산(reproduction)의 양식'이 생산(production) 양식'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피임법의 발명으로 자녀출산의 양식이 변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식의 경험과 성적 경험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또 하나의 구조인 성관계에 대해 미첼은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한다. 역사적으로 성적 자유의 정도는 단순히 남성지배의 지표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형식적, 법적 평등은 노동계약에서처럼 결혼계약에도 적용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형식적 평등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진보이며, 새로운 발전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부부간의 평등이 일단 성립되면, 착취의 한 형태였던 성적 자유가 반대로 해방을 위한 하나의 가능한 힘으로 등장하는데, 일종의 역사적인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평등임과 동시에 자유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성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자녀양육과 관한 부분에서 미첼은, 중요한 것은 사회화과정 자체의 성격과 그것이 요구하는 조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탈코트 파슨스가 어머니의 역할을 정의적(情誼的)인 것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현상적인 분석에는 적절하였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파슨스의 저술에서 가치있는 점은 사회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현대 심리학의 발전으로 아동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점이 모성으로서의 여성의 전형적인 기능을 거듭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어머니의 보살핌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극단의 찬미로까지 신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양육에 관한 미첼의 보다 상세한 견해는 아래에 발췌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같이 네 가지의 핵심적 구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에 변혁이 일어나려면 모든 구조의 변혁이 있어야 하며, 모든 모순들이 한데 뭉쳐 폭발하는 '균열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해방운동은 각 구조의 고르지 못한 발전에 그 분석의 기반을 두어야만 하고 결합된 구조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 전반적인 변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미첼의 전망이다.

2. 자녀양육에 관한 미첼의 언급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생물학적 '운명'은 자녀 사회화(Socialization)의 담당자라는 문화적 천직으로 이어진다. 여성은 자녀를 키움으로써 그 주된 사회적 정의(定義)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적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여성은 젖을 줄 능력이 있는 반면 힘든 노동을 행할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생리적 조건이다. 그러나 적합성이 곧 불가피성이 아님이 우선 지적되어야만 한다. 몇몇 인류학자들은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이 문화적으로 할당된다는 사실이나 그러한 할당의 다양성의 한계 문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회화과정 자체의 성격과 그것이 요구하는 조건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이다. (120-121쪽)

... 파슨스의 분석은 현대 미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정확한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화를 위한 다른 측면이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파슨스의 저술에서 가치있는 점은 사회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에 필적할 만한 어떠한 분석도 제시하지 않았다.) (123쪽)

.... 가족이 점차 소규모화되어 감에 따라 어린이 각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이 들게 되고, 자녀를 사회화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이에 상응해서 그 중요성을 점차 더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화 역할이 증가하고 출산의 역할은 후퇴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은 출산 후 처음 몇해 동안의 사회화가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반면, 양적으로 어머니가 일생을 통해 잉태나 육아에 소비했던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녀의 사회화라는 것을 단순히 여성이 지니게 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천직으로 떠맡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다.

신비화하게 되면 이는 또 하나의 억압수단이 되는 것이다. 더욱기 생물학적 어머니와 사회적 어머니가 꼭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화의 과정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변

할 수 없는 것이나 사회화시키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집단적인 어린이 육아법을 관찰한 사람들은, 숙련된 보모에 의해 양육된 어린이가 (비록 정상적으로 젖을 빨리긴 하지만), 부모를 모르고 자란 아이의 전형적인 불안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런 양육체제에 의해 덕을 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긴 이런 가능성이 미신처럼 믿어져서는 안된다. (장 바비는 4살이 넘는 아이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식과 어머니가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하다"고 까지 말한다.)

앞의 사실이 나타내주는 것은 자녀의 사회화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핵가족이나 생물학적 부모, 아니 생물학적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라고 하는 한쪽에 반드시 그것이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25-126쪽)

..... 출생후 3-4년동안 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지적인 배려의 필요성은 가족의 다른 기능이 눈에 띄게 쇠퇴할지라도 가족을 하나의 전체단위로서 영구화하는데 이념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사실상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여성의 존재가치를 전적으로 어린이 기르기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은 어린이에게도 역시 해로운 것이다.

사회화는 침착하고 성숙한 담당자를 필요로 하는 유난히 미묘한 과정이지만 순수한 가족적 역할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이러한 타입의 담당자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타적인 모성(exclusive maternity)은 때때로 "반(反)생산적(counter-productive)이어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병적으로 애착함으로써 자신의 좌절과 근심을 극복한다. 날로 증가하는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결코 고전적인 모성의 역할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역할에 대한 재검토, 즉 진정으로 어린이에게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양육 담당자를 만드는 문제를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157-158쪽)

..... 유아 출생후 몇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이 현재 유일하게 인정된 사회화의 형태 - 결혼과 가족 - 의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없으며 절대로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162-163쪽)

..... 사회적 이유(어린이를 대신 양육하는 제도의 결여)에서 사실상 모든 여성이 가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때, 유한계층의 이데올로기는 그들에게 역시 가정만이 여성이 머무를 곳이라고 얘기한다. (199쪽)

3. 평가 - 자녀양육에 관한 미첼의 견해를 중심으로

줄리엣 미첼의 [여성의 지위]는 자본주의와 그 기본 계급분석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면서 여성억압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출간 후 미국 사

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재생산양식, 가족제 생산양식 등과 같은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쳤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서의 많은 이론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 활동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The Impossible Marriage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ist Feminism, Line of March 1985 봄). 1970년대 초반 여성해방운동이 담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당시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운동의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였음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첼에게 있어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네 가지 구조 중의 하나가 자녀양육이다. 우리의 관심이 주로 자녀양육의 문제를 향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빠진 부분이 없이 발췌하고 음미해 보려고 하였다. 그가 생산의 문제만으로 여성의 상황을 환원시키지 않고 출산과 자녀양육의 문제를 핵심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분명 현대 사회는 자녀양육을 수행하는 적절한 사회화 제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첼의 언급에서는 이의 당위성만이 주장될 뿐 그 이상의 진전은 전혀 없었다. 다만 미래 사회에서는 가족의 폐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제(諸)관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163쪽)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그런데, 최적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어떠한 해방운동도 아직까지는 경제적 구조”에 집중해야 하며, 경제적 요구는 다른 세가지 요소를 변화시키는 일관된 정책 즉 특수상황에서는 당면문제에 대한 직접적 행동을 일차적으로 연출하는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160-161쪽)이, 실제로 여성의 노동권의 확보와 동시에 자녀의 사회화라는 문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또 이 문제와 ‘가장 약한 고리’가 성관계라는 그의 낙관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미첼의 견해는 적절한 설명을 시도했던 그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숙제로 남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 기획 2

영아 이유식 식단(1)

정리 영아탁아소모임

영아탁아소모임에서는 영아 이유식에 관해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 내용을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식단과,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이유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7-12개월 이유식은 이번호에 게재하며, 12개월 이후의 이유식은 다음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7-9개월 유아 이유식 식단

식단 작성시 고려할 것은 열량과 단백질이다. 이 둘을 맞추면 다른 영양소는 거의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다. 이 이유식 식단은 하루치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가 가정에서 섭취한 양을 빼야 한다.

1일 권장 열량 : 1000kcal 단위 열량 : kcal
1일 권장 단백질 : 30g 단백질 : g

월	화	수	목	금	토
달걀두부찜	치즈죽	달걀죽	멸치죽	감자죽	호박죽
열량:85	열량:117	열량:128	열량:128	열량:104	열량:139
단백질:7.35	단백질:3.3	단백질:5.3	단백질:7.8	단백질:1.58	단백질:2.72
빵죽	야채죽	바나나죽	당근죽	국수장국	미역국
열량:162.5	열량:153.6	열량:133	열량:112	열량:115	열량:118
단백질:5	단백질:2.8	단백질:2.7	단백질:2.12	단백질:8.36	단백질:5
열량:248	열량:271	열량:261	열량:240	열량:219	열량:257
단백질:12.35	단백질:6.1	단백질:8	단백질:9.92	단백질:9.94	단백질:7.72

* 나머지는 분유로 섭취한다.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월요일		분유 (6회)	조제분유×6	25×6=150	125×6=750	4×6=24
	오전	달걀두부찜	소 계	150	750	24
			달걀	1/2개	38	4
			두부	20	19	2
			우유	3Ts	28	1.35
			소금	조금		
	오후	빵 죽	소 계		85	7.35
			식빵	1쪽	100	2
			우유	1/2컵	62.5	3
			소 계		162.5	5
	총 계			998	7.35	
화요일		분유 (6회)	조제분유	150	750	24
	오전	치즈 죽	밥	70	100	2
			치즈	5	16.7	1.3
			물	1/2컵		
	오후	야채 죽	소 계		116.7	3.3
			쌀	3큰술	100	2
			당근	10	2.9	0.3
			시금치	10	2.8	0.2
			호박	10	2.9	0.3
			참기름	1작은술	45	
물			1컵			
소금	조금					
		소 계		153.6	2.8	
	총 계			1020	30.1	
수요일		분유 (6회)	조제분유	150	750	24
	오전	달걀죽	쌀	2큰술	67	1.3
			달걀노른자	1개	38	4
			참기름	1/2작은술	23	
			물	1컵	소금조금	
			소 계		128	5.3
	오후	밤애플죽	쌀	3큰술	100	2
			밤	2개	33.3	0.7
			물	1컵		
			소금	조금		
		소 계		133.3	2.7	
	총 계			1011	32	

10-12개월 유아 이유식 식단

1일 권장 열량 : 1000kcal
1일 권장 단백질 : 30g

단위 열량 : kcal
단백질 : g

월	화	수	목	금	토
장국 죽 열량:157.5 단백질:6.5	다진고기 넣은 야채죽 열량:154 단백질:6.65	감자부침 열량:113 단백질:2.75	갓 죽 열량:83 단백질:1	콩 죽 열량:146 단백질:6.9	현 죽 열량:145 단백질:2
당근 죽 열량:112 단백질:2.12	으깬 감자 열량:116 단백질:5.38	국 죽 열량:169 단백질:5.6	소맥 두 열량:287 단백질:11.63	만자탕과 열량:158 단백질:10.25	동태전과 호박전 열량:158 단백질:9.6
야채달걀죽 열량:144 단백질:9.06	프렌치 토스트 열량:203.8 단백질:6.5	삼색소면 열량:101.4 단백질:5.32	감자 죽 열량:104 단백질:1.58	호박 죽 열량:139 단백질:2.72	쇠고기무우 국과 열량:145.5 단백질:4.5
열량:413.2 단백질:17.68	열량:474 단백질:18.54	열량:383.4 단백질:13.67	열량:474 단백질:14.21	열량:443 단백질:19.87	열량:449 단백질:16.1

* 비고

1. 평균 약 50kcal 정도 열량이 모자라는데 죽의 경우 쌀 1큰술 정도 더 먹이면 34kcal 정도 보충할 수 있다.
2. 분유의 경우 각 회사마다 열량과 단백질 함량이 다른데 분유통에 표시되어 있는 양만큼 먹이면 될 것이다.

요일	때	음 식 명	재 료 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월 요 일	아 침	장 국 죽	쌀	2큰술	67	1.3
			쇠고기	10	12.5	1.9
			표고버섯	10	33	3.3
			참기름	1작은술	45	
			물	1컵		
			간장조금			
		소 계		157.5	6.5	

요일	때	음 식 명	재 료 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월요일	점심	당 근 죽	쌀	30	100	2
			당 근	30	12	0.12
			소 계		112	2.12
	저녁	야채달걀말이	달걀	1개	83	7.49
			시금치	20	6.7	0.67
			당 근	10	4	0.4
			양 파	10	5	0.5
			소 금	조금		
			식용유	5	45	
			소 계		143.7	9.06
		계			413.2	17.68
		분유 (4회)	조제분유	25	125	4
			소 계	100	500	16
		사과소스	사 과	1개	100	
			물	5큰술		
			설탕	5	20	
			소 계		120	
	총 계			1033	33.68	
화요일	아침	다진 고기 넣은 야채죽	쌀	2큰술	67	1.3
			쇠고기	20	25	3.75
			애호박	20	5.4	0.54
			당 근	20	8	0.8
			된 장	1/2작은술	3.7	0.26
			물	1½컵		
			참기름	5	45	
			소 계		154.1	6.65
	점심	으깬 감자	감 자	20	13.3	0.27
			당 근	10	2.9	0.3
			달걀노른자	1개	38	4
			우 유	2큰술	16.8	0.81
			소 금	조금		
			기 름	5	45	
			소 계		116	5.38
	저녁	프렌치트스트	식빵 1쪽		100	2
			달걀	1/2개	42	3.7
			우 유	2큰술	16.8	0.81
			식용유	5	45	
			소 계		203.8	6.51
		계			474	18.54
		분유 (4회)	조제분유	100	500	16
		요 플 레		1개	110	
		계			610	
		총 계			1084	34.54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수요일	아침	감자부침	감자	20	14	0.28
			양파	10	5	0.5
			치즈	10	33	1.67
			밀가루	1작은술	16	0.3
			기름	5	45	
			소금			
			소계		113	2.75
	점심	굴죽	쌀	3큰술	100	2
			굴	40	24	3.6
			참기름	5	45	
			소금			
	소계		169	5.6		
	저녁	삼색소면	국수	20	67	1.34
			달걀	10	16	1.49
			쇠고기	10	12.5	1.9
			오이	10	1.9	0.19
			당근	10	4	0.4
			소계		133.3	5.32
		분유 (4회)	조제분유	100	500	16
		사과즙		200	100	
		두유		200	125	6
		총계			1108	35.67
목요일	아침	잣죽	쌀	1½큰술	50	1
			잣	1/2큰술	33	
			물	1½컵		
			소금	조금		
	소계		83	1		
	점심	소만두	밀가루	1/2컵	160	3.3
			두부	20	18	
			배추잎	50	8	0.84
			달걀	1개	83	7.49
			육수	1/2컵		
			물	1큰술		
			참기름	2	18	
			간장			
	소계		287	11.63		
	저녁	감자죽	쌀	2큰술	67	1.3
			감자	20	14	0.28
참기름			1/2작은술	23		
물			1컵			
소금			조금			
소계		104	1.58			
계			474	14.21		
	분유 (4회)	조제분유	100	500	16	
	굴즙			50		

요일	때	음 식 명	재 료 명	평 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목요일		계			550	16
		총 계			1024	30.21
금요일	아침	콩 죽	쌀	1큰술	66	1.3
			흰 콩	1큰술	80	5.6
			물	1½컵		
			소금	조금		
			소 계		146	6.9
	점심	완자탕과 밥	쇠고기	30	37.5	5.625
			달걀	½	33	2.9
			밀가루	1작은술	16	0.3
			육수	1/2컵		
			밥	50	71	1.42
			소 계		157.5	10.25
	저녁	호박죽	쌀	3큰술	100	2
			청등호박	60	36	0.72
			물	1½컵		
			꿀	1/2작은술	3	
			소금	조금		
			소 계		139	2.72
		계			443	19.87
		분유 (4회)	조제분유	100	500	16
		귤 주스		200	100	
		계			600	16
		총 계			1043	35.87
토요일	아침	흰 죽	쌀	3큰술	100	2
			물	1컵		
			참기름	5	45	
			소 계		145	2
	점심	동태전과 호박전	동태살	30	30	4.5
			애호박	30	8	0.8
			밀가루	1큰술	33	0.6
			달걀	1/2개	42	3.7
			기름	5	45	
			소 계		158	9.6
	저녁	쇠고기무우국과 밥	쇠고기	10	12.5	1.9
			무	20	6	0.6
			참기름	3	27	
			밥	70(밥½공기)	100	2
			소 계		145.5	4.5
		계			449	16.1
		분유 (4회)	조제분유	100	500	16
		사과주스		200	100	
		계			600	16
		총 계			1049	32.1

어린이집에서 권하는 이유식

빵죽

우유를 약한 불에서 데우면서 가장자리 잘라낸 식빵을 잘게 뜯어 넣는다. 끓을 때 수저로 저어 빵이 잘 풀어지게 하고 풀처럼 될 때까지 끓인다. 소금과 설탕으로 먹기 좋게 간을 한다.

치즈죽

치즈는 곱게 다져 놓고 물은 끓여서 밥을 넣고 다시 끓인다. 밥알이 퍼지면 다진 치즈를 넣고 녹기 시작할 때 불에서 내린다.

야채죽

호박, 당근은 잘게 다져놓고 시금치는 데쳐서 잘게 다져 놓는다.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뜨거워지면 불린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인다. 어느 정도 끓으면 준비한 야채를 넣고 쌀알이 푹 터질 때까지 끓인 후 소금간을 한다.

달걀죽

쌀을 불려서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다. 쌀알이 퍼지면 달걀노른자를 넣고 재빨리 저어 덩어리지지 않도록 한다. 달걀은 반숙 정도로 익힌다. (당근죽, 감자죽은 달걀죽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달걀 대신 당근과 감자를 찌서 으개어 체에 밭쳐 넣는다.)

밤알죽

쌀은 불려서 분말기에 넣고 곱게 간다. 밤은 삶아서 으개어 체에 내린다. 쌀과 밤을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눈지 않게 저으며 끓이다가 약한 불에서 끓여 퍼지면 소금으로 간한다.

호박죽

호박을 껍질째 찜통에 넣어 단내가 날 때까지 찜는다. 냄비에 불린 쌀과 분량의 물을 넣고 끓이다가 쌀이 퍼지면 삶은 호박을 손갈로 곱게 으개어 넣는다. 푹 끓여 걸쭉하게 되면 불에서 내려 꿀과 소금으로 간해서 먹인다.

백설기죽

백설기 반을 조그맣게 썰어 끓기 시작하는 물에 넣는다.
수저로 저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다.
맛이 맹맹하면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한다.

다시마새우죽

쌀에 물을 부어놓는다.
물에 다시마와 새우를 넣고 끓여서 다시마와 새우를 건져낸다(다시마나 건새우를 잘게 썰어 넣기도 한다).
다시마와 새우를 건져낸 물에 쌀을 붓고 끓인다.
거품이 나 넘치므로 계속 저어준다.
쌀이 풀릴 때까지 끓여서 소금을 조금 넣어준다.

과일 요구르트

요구르트 기계에 우유 500cc와 효소 1개를 넣고 7시간이 지나면 요구르팅이 된다.
요구르팅에 과일(참외, 사과, 딸기 등)과 설탕을 넣는다.

감자전

감자를 강판에 갈아 밀가루, 소금과 섞어 기름을 적게 두르고 얇팍하게 지진다.

찐 감자, 찐 고구마

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집어넣는다.
고구마는 천천히 먹게 도와주고 물과 함께 준다.

미수가루치즈죽

우유, 설탕, 미수가루를 섞어 수저로 떠 먹게 한다.

들깨죽

쌀을 깨끗이 씻어 끓이다가 들깨를 물에 개어서, 끓는 죽에 넣고 같이 살짝 끓인다.
(약간의 소금간을 한다.)

땅콩죽, 호도죽

땅콩이나 호도를 갈아서 쌀과 함께 오래 끓인다.

동태죽

멸치와 다시마를 물에 넣고 우려낸다.

동태, 된장 등을 넣고 끓인다.
쌀을 넣고 오래 끓인다.

달죽

맑은 껍질을 벗겨내고 마늘과 함께 푹 끓인다.
참쌀도 중간에 넣고 함께 끓인다. 다진 파와 소금을 넣는다.
(맑은 껍질을 벗겨내면 기름기가 많지 않아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는다.)

복어죽

멸치, 복어, 다시마를 물에 넣고 우려낸다.
쌀을 넣고 오래도록 끓인다.

* 참고 (식품의 어림치)

곡류군(100kcal) : 밥 1/3공기(70g) = 식빵 1쪽(35g) = 옥수수 1/2개(50g)
= 고구마 중 1/2개(70g) = 감자 대 1개(150g)
= 국수 삶은 것 1/2공기(90g) = 쌀3큰술(30g)

어육류군 : 50kcal = 고기류 탁구공 크기(40g) = 생선류 소 1토막 = 새우 중 4마리
= 조개살 1/3컵 = 뱀어포 1장 = 물오징어 중 1토막
= 꽃게 중 1/2마리

75kcal = 햄1쪽 = 달걀1개 = 콩치 소 1토막 = 두부 1/5모

100kcal = 생선통조림 1.3컵 = 치즈1.5장 = 갈비 소 1토막

채소군(20kcal) : 익혀서 1/3컵

지방군(45kcal) = 기름류 1작은술 = 버터류 1.5작은술 = 마요네즈 1작은술
= 견과류 1큰술

우유군 : 우유 200cc = 두유 200cc = 125kcal

과일군 : 사과 중 1/2개 = 귤 중 1개 = 토마토 대 1개 = 감 중 1/2개 = 배 중 1/3개
= 바나나 중 1/2개 = 수박 대 1쪽 = 참외 중 1/2개 = 50cal = 과일쥬스 1/2컵

■ 건강하게 삽시다

유소아기의 피부 발진(2)

이흥진 /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 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이번 회에는 요즈음 발생이 많은 몇가지 피부 발진을 동반한 질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두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수두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매우 전염성이 높아서 거의 90%정도는 병에 걸리게 된다. 수두의 전파 방식은 환자의 타액에 의한 비말 감염(공기를 통한)이나 직접 접촉에 의하여 퍼지며, 호발 연령은 5-9세이나 이보다 어린 나이에도 걸릴 수 있다. 계절적으로는 늦겨울과 초봄에 제일 많이 발생하나 요즈음도 상당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11일내지 21일의 잠복기를 거친다. 발진이 나타나기 24시간 전에 발열, 식욕부진, 권태감 등이 선행되어 나타날 수 있다. 발진이 나타나는 양상은 붉은색의 반점이 생겼다가 빠른 속도로 1-5mm크기의 맑은 물집이 잡힌다. 이 맑은 물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 고름처럼 변하고 서서히 딱지가 앉게 된다. 수두를 앓고 있을 때 보기에는 매우 흉칙하고 흉터를 많이 남길 것처럼 보이나 2차 감염만 되지 않는다면 후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치료 방법의 기본은 긁지 않는 것이며, 칼라민 로션등을 발라 주면 가려울 때 도움이 된다. 수두 바이러스에 잘 듣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꼭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잠복기때부터 전염성이 있으며, 전신에 있는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아야 전염성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한군데라도 물집이나 고름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발진은 3-4일 정도 지속된다.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앓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앓는다.

수족구병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한다. 손, 발, 입안에 3-7mm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기때문에 수족구병이란 병명을 붙이고 있다. 원인균으로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관계하고 있다. 이 병의 자연적인 경과를 일주일 이내에 수포내의 액체가 흡수되면서 회복된다. 보조적인 치료외에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없다. 드물게는 부균성 뇌막염이나 뇌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심하게 토하고 의식이 혼탁해지며, 고열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큰 병원을 빨리 방문하여 치료해야한다.

성홍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과는 달리 연쇄상 구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의한 질환으로, 매우 심한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며, 빨리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매우 고약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빨리 입원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페니실린계통의 약이特效약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다. 잠복기는 1-7일이며 매우 전염성이 높아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번 앓고난 후에도 면역기능이 없어 다시 걸릴 수도 있다. 이 병은 매우 빠르고 심한 발병 양상을 보인다. 39도내지 40도의 고열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며, 치료하지 않으면 5-7일간 지속될 수 있다. 발열에 동반되어 목안이 심하게 아프고 구토증세가 생기며, 복통, 오한 등이 심하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후 12-48시간 이내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닭살 모양의 붉은 색의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곧 몸통 및 사지로 퍼져 24시간안에 전신을 덮게 된다. 발진이 있는 부위는 가려워한다. 이마와 뺨은 홍조를 띄게 되나 입주위는 창백하게 보인다. 성홍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페니실린계통의 약물이特效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24시간 안에 대부분의 증상이 급격하게 소실된다. 그러나 이 병의 치료가 지연되면 심장의 판막을 손상시키거나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소변이 나오지않고 몸이 부을수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의 매우 심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되겠다. 이 병은 기본적으로 오밀조밀 모여사는, 영양상태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이러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서

소금이 되고 화살이 되는 인권지기

주혜민 / 편집부

약속시간보다 30분을 일찍 도착했다. 서울 시내에서 약속시간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미리 서두른다는게 너무 일찍 도착해 신용산역에서 30분을 떨게 되었다. 올겨울은 춥지 않을거라는 기상예보를 무색케하는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야무지게 조이는 12월 19일 밤, 우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가고 있었다. 얼른 아랫목에 쏙 기어들어가 질화로에 군밤이라도 구우며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될 것 같았다. 그건 추위도 추위려니와 사랑방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이다.

언제 한번 갔던 적이 있다는 동행자의 아련한 기억 덕분에(?)으로 신용산역 부근의 호프와 당구장이 있는 5층짜리 흰 건물을 뒤지고 다니게 되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찾은 용산역 광장 맞은 편에 자리잡은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준비하게 놓여있는 컴퓨터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곳을 지나 들어간 자료실-빼곡히 정돈된 자료들이 제 자리에 분류되어 있었다. 웬지 주눅까지 들었다. 순간 아랫목과 질화로와 군밤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인 서준식씨는 풍문대로(전화통화 한번 하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실무활동가인 류은숙(인권홍보 담당, 28), 김정희(자료실담당, 22)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랑방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대한 전문적 활동이 필요성을 느꼈던 서준식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소모임을 하게 되면서부터 출발했다. 그게 92년 8월이었단다.

"초창기때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서 막막했어요.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청소하고 전화 몇 통화 하고나면 하루일과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신념을 지키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주변사람들의 믿음에 찬 모습 때문이었어요."

초기 논의과정에서부터 있었다던 류은숙씨의 말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식구들.

뒤줄 좌측 두번째가 류은숙씨, 앞줄 좌측이 김정희씨다.

그랬던 사랑방이 한눈에 척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하게 했던, 그 야무진 신념은 어디서부터 왔던 것일까?

인간의 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계획적인 인권운동을 벌여온 사랑방인들. 이게 바로 그들의 신념이란 걸 어렵듯이 알 것 같았다.

LOVE HOTEL을 사칭하는 사랑방엔 9명의 상근자와 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인권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이 시대의 콜롬부스들이다.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랑방에 와 활동한 지 1년이 되었다는 김정희씨는 인권운동을 신세계와도 같다고 한다.

"골치 아픈 일도 많고 그와 함께 선입견 역시 강한 일이에요. 하는 일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가는 일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만큼 보람도 크지요."

사랑방은 인권홍보, 국제연대사업, 인권교육팀으로 나뉘어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사랑방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던-매일 팩시밀리로 배달된다- 인권전문지 '인권하루소식'을 만들어 내는 팀이 인권홍보팀이다. 현재 310호까지 발행했는데 소위 문민정부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인권관련소식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소식지를 만들어 낸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듯 했다.

"어려움이 따르지만 인권에 관련된 소식은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리는 작업이 생명과 같아서 꼭 해내야 되는거죠."

이와 함께 자료실 관리도 홍보팀의 일이다. 또 한축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자료. 들어온 자료는 최대한 읽어보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모여진 자료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었다.

부러움마저 들었다.

너절하게 널려있는 자료, 정리되어 있지 않는 자료의 모습이 우리의 풍토였지 않았나.

그런 관습에 익숙해져있던 내겐 충격적인 것이었다. 배워야 되고 실천해내야 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았다.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조건 속에서도 준비하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생각하게 되었다. 첫발을 내딛으려는 의지-사고의 비약은 아닐 듯 싶다.

듣기에 좀 거창한 국제연대사업팀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연대를 펼쳐나가는 것인데, UN이나 세계각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구조화된 인권탄압의 국제적 분업체계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권옹호운동을 벌려나가고 사업을 하는 곳이다. 또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정보교환 및 공유의 자리 또한 만드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과 함께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

생소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의 범주는 꽤 넓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인권의식은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조차 모르고 당하는 수도 있고 그것이 타인에게 가해지는 수도 있죠. 그 단적인 예가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던 ‘샘’지 사건으로 고등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류은숙씨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가를 덧붙여 설명했다. 1989년 UN총회는 <어린이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는데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 누려야 할 약 40개 조항에 걸친 광범위한 권리가 규정된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어린이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4조)’, ‘결사, 집회의 자유(15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 조약에 비준함으로써 정식 가입국이 되었다. 이러한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현 정부가 내년엔 첫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저희는 이런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우리는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최대한 매체를 개발해 소단위나마 교육하는 작업에서부터 만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목에 있는 윤리시간을 인권교육시간으로 대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방대하고 끝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운동을 단지 양심수 석방으로만 여겨왔던게 솔직한 우리의 수준이었다.

서준식씨는 이에 “인권은 포괄적이면서도 결코 고정된 범주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보하는 발걸과 함께 혹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하고 확대되어 왔다. 인권의 인명은 근본에 있어서 진보이데올로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기본이념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고조시켜나가는 듯했다.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들쳐보고 있자니 제대로 사전지식이나 기초지식이 없었던 것에 미안함을 떠나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면서도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지난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활동가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아끼지 않는게 저희 사랑방의 특징이자 자랑입니다. 서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개별적인 스케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지요.”

류은숙씨의 이야기 속에서 알 것 같았다.

힘겨운 초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방인들의 본능에 가까운 힘의 근원을 말이다. 그것은 모든 활동의 중심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가는 활동가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재충전의 기회를 아낌없이 과감히 투자하는 활동의 방식.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사랑방의 자랑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제 힘껏 펼쳐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자랑꺼리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은숙이 언니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됐다며 다소 쑥스러워하는 김정희씨의 자랑이 고깝게 들리지 않는건 사랑방의 실체와 진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일게다.

“95년도엔 좀더 새로워질거예요.”

아니, 또 무엇이 더 이상 새로워질게...

“활동가 자체 재교육을 실재화하는 해가 될 거예요. 6년에서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돌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고문백서가 나올 예정이예요. 사례와 고문에 따른 후유증 등 고문에 대한 모든걸 자료로 발간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연대사업팀이 따로 독립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겁니다.”

이러한 사랑방의 원대한 계획과 함께 사랑방지기로서 개인의 계획을 듣고 싶어졌다.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정희씨. 인권교육에 전문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류은숙씨. 그들의 개인 계획은 큰 줄기 즉 인권운동의 줄기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가지로 커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긴 겨울을 조용히 준비하고 다지는 ‘몰입, 집중의 세순인’ 것이다.

짜장면을 저녁을 떼우는 사랑방지기들에게 군만두를 얻어먹고 호들갑스럽게 그자리를 빠져나왔다.

꼭 이런 곳을 빠져나올 때 느끼는 파듯함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서도 겨울바람의 매운맛은 썩 괜찮은 신선함이었다.

사랑방을 찾아왔을 때 어색하게 늘어져있던 흥등가 - 색시집의 싸구려 불빛이 아주 선명하게 밝아있었다. 밤이 꽤 깊었나 보다.

호기심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던 그곳.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랑방. 용산역을 행해 발빠르게 걷고 있는 나.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얘기했듯이 진정 전체 사회운동의 소금이 되고 화살이 되는 역사적 사명의기를 대를 다시 한번 걸면서 말이다.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딸들아, 이제부터 ‘권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보시오.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권리의 도움을 받으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신으로 가득찬 자유인입니다.

권리를 생각하는 너희는 더이상 ‘여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 서준식씨의 「어린 딸들에게」 중에서 -

■ 발골이야기

얼어붙은 땅위에 당당히 외치는 인권 선언

- 세계인권선언일을 되돌아 보며 -

편집부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통치되고,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기초하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일」을 다시 맞은 우리에게 참다운 권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무관심으로 내버려지는 우리 자신의 현주소, 마땅히 지켜지고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각박하고 차가워져만 가는 날씨가 마치나 심란하게 얼어 붙어 있는 우리 이웃의 인권을 새삼 되씹어 보게 된다.

국제인권장전이란 무엇인가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도덕적 권위와 법적 구속력을 아울러 갖춘 국제인권장전(國際人權章典)의 제정이라는 거창한 작업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30년, 마침내 국제인권장전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197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A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B협약), 그리고 B협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가 발효된 것이다.

이 두 국제 협약은 가맹국에 대해 광범한 인정,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선택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함께 개

인도 인권 침해를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기본 목적을 밝힌 문서가 국제연합 헌장인데, 오래 전에 모든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신장한다는 귀절이 이 헌장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 기관인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장전과 관련된 결정 한 가지를 내렸다. 즉 앞으로 제정될 국제인권장전은 일반원칙을 밝힌 선언, 협약, 그리고 시행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선언은 도덕적 권위를, 협약은 가맹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인권위원회는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해 냈다. 인권 옹호의 기준을 설정한, 역사적 문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특수한 권리에 관한 협약 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과 법률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조약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문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있는 여러 원칙을 조약의 규정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제연합의 꾸준한 활동이 진행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의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가 제각기 다르니 어

떤 권리를 규정하는 데 모든 나라의 동의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66년 12월 16일 국제 협약과 선택 의정서 채택된 이후 각기 효력을 갖게 된 것은 35개국 이상의 비준 또는 가맹을 받기 위해 10년 경과된 1976년이였다.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시행 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각기 다르다.

먼저 B협약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맹국은 선거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 인권위원회의 정원은 18명으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다.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고결한 인격과 인권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하고, 또 자신의 일반적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와 해당국 앞으로 통보하는 권한을 가진다.

B협약의 선택 조항에 의하면 인권위원회는 다른 가맹국의 의무 불이행을 나무라는 특정 국가의 통보를 검토하는 권한도 가진다. 이 때, 인권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그리고 관계국의 사전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특별 위원회는 B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조정 업무를 벌인다.

A협약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인 권고를(가맹국에 대해) 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서 가맹국을 돕기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국제적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인권에 대한 존경을 고취하는 것이다. 국제연합총회는 이 두 개의 국제 협약과 선택 의정서가 국제연합의 그와 같은 기능을 크게 향

상시킬 것으로 믿고, 모든 국가에 대해 가맹을 권고한 바 있다.

쿨트 발트하임 당시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장에 명시된 국제연합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인종·성별·언어·종교에 기인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누구나 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국제인권협약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 수단을 국제연합과 가맹국에 마련해 주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비준 또는 가맹함으로써 인권 존중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엄숙히 밝혔다. 본인은 그 밖의 나라도 이 대열에 참가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무엇에 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마땅히 존중하고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됨이요, 당연한 존재의 존귀함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무력한 다수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정당화 되던 굴절된 역사가 있다.

해야 할 많은 것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며 혼돈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겨울.

생명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긴 터널의 끝임을 감내하면서 다시 출발의 신발 끈을 조여봐야 잠겠는가.¹⁾

11) 참고자료 - 1993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자료」

■ 서평

우리 것을 먼저 보아야 남의 것이 보인다

-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¹⁾을 읽고 -

박성연 / 교육연구부

요새는 우리 탁아의 모습을 따져보고 그 내용을 비판하는 준거를 외국의 사례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하며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판하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주의할 것이 있다. '같은 상황과 맥락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가 될만한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할 문제이지만 따져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몇가지의 원칙이 요구되는 일이다.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은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나라간의 비교에 원칙을 제시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중국과 미국의 인류학자 두명과 유아교육자 한명이 일본, 미국, 중국의 현지 연구를 통해 각 문화의 유아교육기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이들이 제시한 것으로 보면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과, 세 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을 비교해서 각 사회의 문화 특징을 극명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비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있다가 보다는 '각 기관이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고 각 문화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탁아와 다른 나라의 탁아를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탁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이러한 의무감을 안고 이들이 어떠한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강득희, 이경 공역(1993),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 서원

...이렇게 국가와 문화에 휩싸여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또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여기서 교육은 사회화라는 전제를 하면서,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 유아교육기관이 내용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은 그 사회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을 원하는지를 잘만 관찰하면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다.

이들은 정작 유아교육기관보다는 각 문화에 대해 궁금했다. 그런데 거기서 유아교육기관을 소재로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가 가족과 친족 중심의 육아를 이루다가 이것이 점차 변화하여 제도화된 집단 육아로 그 형태가 자리잡아 가면서 유아교육기관이 육아를 담당하는 중요한 곳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 부모, 사회에 봉사하는 복합적 기관이다. 이렇게 국가와 문화에 '휩싸여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또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여기서 교육은 사회화라는 전제를 하면서,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 유아교육기관이 내용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은 그 사회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을 원하는지를 잘만 관찰하면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한 사회의 문화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변화 양상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유아교육기관의 과거, 현재, 미래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을 갖고 보았을 때 결국은 또 문화의 모습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알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은 다르지만 이 내용의 중요성과 알고자 하는 내용의 전반은 같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의 모습을 면밀히 드러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자. 이들은 일단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인 '현지문화 기술'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과 여기에 더 덧붙여진 비디오를 사용한 방법이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재미있는 방법이며 교사의 경우도 아이들과 탁아소 모습 전체를 관찰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처음에는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유아교육기관의 일과를 비디오테이프에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담았다. 두번째는 이것에 대해 연구자가 글로 풀어서 쓰고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교사와 부모, 원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려한다. 일차적으로 그 나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었다. 또한 그 나라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것이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고 그들의 설명을 통해 전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설명 뿐 아니라 일정한 장면에 대한 판단까지를 고려하여 서로간의 판단 속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공통의 준거를 도출해내려고 했다. 세번째로는 이러한 연구의 내용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전체 맥락에 대해 서술함으로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간인지, 사회적 모습은 어떤지를 드러나도록 했다. 이것은 두번째의 마지막 과정에서 서로의 판단을 근접시켜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맥락의 제한성을 둬으로써 역시 비교를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 나라 유아교육기관의 모습이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를 통해 더 잘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하에 세 나라간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려고 한 경우이므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아교육기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담고 싶은 모습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글로 써보고, 그것에 대해 교사들, 부모들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이며, 지역은 어느 곳인가, 시간, 장소, 사회적인 다른 요소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유아교육기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문화의 어떠한 요소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문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와 같은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일단은 한 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을 하나씩 서술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몇가지의 준거를 들어 비교하고 있다. 그들이 비교의 내용으로 부각시킨 문제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학교로서의 유아교육기관, 버릇 잘못 들이기, 도시 산업사회에서 부모의 투자, 축소된 어린이 세계, 확대된 어린이 세계, 유아교육기관과 집단 감정, 일하는 어머니들, 유아교육기관과 부모들, 좋은 보육교사의 자질, 보육교사직과 성, 유아교육기관의 사회경제, 유아교육기관: 보수냐, 진보냐?

내용의 맥락은 우리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준다고 보지만 이 책에서 바라보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유치원과 탁아소가 서로 다른 체제로 묶여 있으므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한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내용의 맥락상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탁아소'와 유사한 형태의 유아교육기관이라면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저자들의 일차적 관심이 '문화'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에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실제적인 차이에도 세밀히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친밀하고 매력적이면서도 유용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권유하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유아교육기관을 알게 되는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긴 문화적으로 제한된 신념이나 실천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실은 어느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촉진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

좋은 그림책 소개

♪ 눈오는 밤

글, 그림 닉 버터워스 / 사계절 / 5,000원

퍼시아저씨는 공원앞 자기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항상 먹이를 나눠주는 온화한 공원이기.

추운 겨울날 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얻으러 다람쥐가 퍼시아저씨네 오두막에 찾아온다. 그리고 조금 뒤에 토끼 두마리, 여우, 오소리, 오리, 고슴도치, 생쥐가족까지 차례로...

퍼시아저씨의 낡은 침대가 좁아 동물들은 서로 떠밀다가 결국 모두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난다. 놀란 동물들은 모두 숨어버리는데 마루밑에서 나온 것은 바로 두더지. 괴물인줄 알고 숨은 자리는 동물들의 잠자리가 되고, 퍼시아저씨와 두더지는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자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에서 보여주는 퍼시아저씨의 온화한 표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퍼시아저씨의 넉넉한 마음을 이 추운 계절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한다. 유럽의 넓은 공원과 공원에서 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을 갖기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글이 많아 교사가 적은 수의 아이들과 조용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

(4세이상)



■ 시사말뚝이

역사의 되돌이표 94년

편집부

17년전,

자신의 집앞에 버려진 아기 - 정신박약아.

단칸 지하셋방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의 이야기가 아침 TV프로에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그 노부부는 취로사업과 아파트 수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버려진 아이, 그것도 정신박약아의 사내아이를 그 어려운 살림에 17년동안 말없이 키워 온 노부부의 따뜻한 이야기였다. 이젠 친아들이 된 17살 다 큰 녀석의 겨우 '엄마', '아빠'라는 말에 너무 고마워 울었다던 노부부.

아침부터 눈시를 붉게 하는 이야기에 애통함과 함께 가슴 훈훈함을 느끼게 했었던 적이 있었다. 몇일전 방영된 노부부의 이야기가 큰 사건들에 떠밀려 그 감동에도 불구하고 잊혀졌다.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는 그 이유가 있다. 항상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버릇처럼 되돌아 보아지는 주변의 삶들 때문이다.

연말연시를 맞는 도심은 예전에 보였던 들뜸도 화려함도 없다. 그저 네온싸인의 화려함만이 어색하게 번쩍거릴 뿐이다.

과소비없는 연말연시를 보내자는 정부의 홍보성과 때문일까?

으레 12월이 되면 잊었던 한해를 되짚듯이 끄집어내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했다. 그런데 올해는 끄집기엔 껄름직한 구석이 많아 그냥 12월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만 드니 어쩔일인지 모르겠다. 개인의 일에도 1년이란 세월 앞에 여러가지 일들이 굴곡을 안고 다가오는데 나랏일이라는게 오죽하겠나만은, 그저 다사다난했던 94년으로 치부하기엔 그 상처의 골이 깊었던 한해였다. 날벼락의 한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그저 날벼락이라 돌리기엔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이란게 특히 불행앞에서는 나와는 무관하게 생겨나는 일들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날벼락 시리즈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젠 자신에게도 충분히 닥쳐올수 있는 사고라는걸 알게 되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말이다. 여기저기 서울 시내를 쭉서놓고 벌이고 있는 공사장 위를 걸어다니면서 '이거 혹시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은 나만이 드는 것일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나라에 삼재가 낄 해였다고 그냥 운명으로 떠맡기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어 이해하고 가지만 그런 것이 그동안 이사

회를 만연시켰던 부정과 썩은 정치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다면 단순히 역사적 운명으로 넘길 수 없는 노릇이다.

하늘, 땅, 바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형사고를 연출시켰던 진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세무비리.

그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사람이 성실한 활동으로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셈이다. 부정과 부패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 과소비를 한 자들, 울곧게 삶의 터전을 일궈온 서민들의 터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투기꾼들.

그러나 결국 이런 자들이 잘 번식하게 그 온상을 만들어내고 복부인과 비리공무원과 부실공사를 재생산해내는 이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진정 개혁의 물고를 트일 의지가 있는가? 쇼맨십의 정치가 빛은 94년의 비극. 이젠 안된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버릴 순 없는건 쇼맨십의 정치 때문이 아니었다.

성실하고 소박하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같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에 의해 짓밟혀질지도 모르는 마지막 이 사회의 희망. 얼마남지 않은 94년의 회오리 속에서 지켜내고 싶은 소망이 될 것 같다.

아-

며칠뒤면 파란만장한 94년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게 된다.

아니 묻히게 아니라 희망과 함께 각오를 강요하게 되는 역사의 되돌이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우리네 아이들

부스러기선교회의 역사와 95년 전망

- 그 속에서 보는 우리네 아이들 -

부스러기선교회는 1986년 12월 전국의 1백여개 남짓한 빈민지역의 탁아·공부방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선구자적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1980년대 초 청소년, 철거민, 운전기사, 광부, 어부, 소년소녀가장 등 1천34명이 자살을 시도, 생활고로 인한 죽음이 증가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이를 해결하려던 몇 뜻있는 사람들의 관심으로 태동한 것이 바로 부스러기선교회(총무:강명순)이다.

부스러기선교회의 태동이 상징하듯이 소외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정신은 '부스러기'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중에 나오는 '부스러기'라는 말은 찌꺼기라는 의미보다 이방여인의 딸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소중한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또한 병든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과 믿음의 상징'을 의미하듯이 부스러기선교회도 이 정신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부스러기선교회는 지금까지 가난한 지역의 탁아방 11개소, 공부방 24개소의 운영비, 시설비, 연료비, 교사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7백42명과 교사 및 자활교사 2백54명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부설기관으로 빈민지역의 여성들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내에서 전개되는 어머니학교 등 서울, 대전, 인천 등 22개 단체에서 소그룹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부스러기선교회는 후원사업과 더불어 교사, 자모, 자원봉사자, 어린이 등의 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한편, 산동네, 공단 등 가난하지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훈한 이야기가 담긴 '우리동네 이야기', 가난한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긴 사연 짧은 얘기', '콧물 찹찹 눈물 뚝뚝' 등을 출판하는 홍보출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부방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선교사(공부방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94년을 맞아 부스러기선교회는 올해를 '결손(위기)가정 바로 세우기 해'로 정하고 결손가정선교 세미나, 결손가정 상담 및 치료센터건립 기금 마련 1백만서명운동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 관심과 기독교인의 참여를 호소해왔다. 또 성명서를 발표하여 방치아동과 방황하는 청소년, 위기에 처한 가정을 올바른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결손가정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산의 십분의 일을 결손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전담부서의 신설과 아동학대방지법 등 제반 법률제정과 사회복지차원의 확대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교회여성들의 모임인 95통일희년교회 여성협의회 나눔실천위원회 소속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억눌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각 교회에 호소하기도 하고 있다.

부스러기선교회가 94년을 결손가정바로세우기의 해로 정하고 활동하면서 지존파사건, 은보현사건 등으로 인해 결손이란 의미가 왜곡되어짐을 느꼈다.

결손가정은 외형적인 형태상의 결손가정과 실질적인 결손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상의 결손가정은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경우로, 핵가족도 넓은 의미로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편부, 편모가정, 조부모 양육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등이 있다.

실질적인 결손가정은 지속적인 부부불화가정, 지속적인 아동학대가정, 근친에 의한 성폭행이 일어난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빈곤가정, 가정폭력을 일삼는 가정 등을 일컬어 말한다.

부스러기에서도 '결손'이란 말의 의미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깨닫고 '위기가정'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학적인 개념정의에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결손가정이란 말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95년도 결손/위기 가정 어린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열쇠아동 전화'를 개설할 계획이다(여기서 '열쇠아동'이란 방과후 열쇠목걸이를 걸고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린이를 일컫는 용어이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와 빈곤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전화도우미로 열쇠어린이 전화를 개설, 각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 글마당

♣ 탁아소별곡

아기자람터에서 생긴 일

* '아기자람터'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부산사투리를 연상하면서 읽어주세요.

이야기 하나.

연꽃반 수업시간에 민우가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민 우 : 선생님, 허수아비를 그늘에 갖다놓고 올게요.

(점토는 원래 그늘에서 말린다)

지 혜 : 민우야! 너, 그늘이 어딘지 아니?

민 우 : 응! 그늘 알아. 한결이 집 계단이 그늘이야...

모두들 : ???....

이야기 둘

민주가 바닷가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친 구 : 우리는 나중에 큰 집에 이사간다.

민 주 : 너 집에 침대있나?

우리집에는 침대 있다.

친 구 : 우리 엄마 조금 있으면 아가야 나온다.

민 주 : (신경질적으로) 우리 엄마 뱃속에는 아가야가 빼악 빼악 하고 있다.

친 구 : 우리는 조금 있으면 큰 아파트로 이사간다.

민 주 : (한참 생각을 하더니) 우리 집은 아파트 옆에 살고 있다!!!

15소문 15문15우

이야기 셋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하다가 연꽃 선생님이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

아이들 : 선생님 집에는 애기가 있는데 왜 오래요?

선생님 : 선생님 집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애기가 없단다.

아이들 : 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지혜 : 엄마가 (결혼)하지 말래요...

선생님 : !!!!

이야기 넷

효상이가 엄마랑 시장에 갔었다.

효상이 : 엄마, 멸치는 작은 것이 맛있어요.

엄마 : 왜

효상이 : 큰 멸치는 국물에 넣는 것이라 맛없어...

이야기 다섯

낮잠시간에 성규가 몸을 긁어서 이를 본 선생님,

선생님 : 성규야, 목욕탕에 가라.

성규 : 목욕탕에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

■ 우리들의 목소리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그리워하며...

이경희 / 푸른하늘놀이방 교사,
본 회 前사무국장

서해안 개발의 중심적 지방도시, 신라의 고향,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사시는 곳, 당진.

이곳에 내려온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느낌은 1,2년은 족히 지난 것 같다.

내려올 때는, 내가 할 일만 있다면 지방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는 것도 내 인생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시도라 믿으며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내려오기로 마음 먹으면서 당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고는 보육교사와 지탁연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하리라 마음먹고 있었기에 다른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당진이라는 작은 지방도시에서 보육에 관련된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육교사 자리였기에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던 중, 다행히도 연합회 사무국에 있을 때 당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과 상담한 적이 있어서 그 분과 연락이 되어 그래도 쉽게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서 알아보니 그 어린이집은 내가 살 동네와는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보담이(편주:이경희씨의 딸)를 맡길 곳도 쉽게 찾아지질 않았다.

이미 내려가기로 결정은 되었고 어찌해야 할지 껄껄해하고 있는데 희소식인지 악연인지 모르지만 놀이방을 하면 좋겠다는 당진분들의 권유가 있어서 과감하게 그 더운 7월, 놀이방 문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게 힘들게 시간이 지나갔다. 그동안 사무국에 있으면서 내가 영원히 사무국에 있을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둔갑해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이들과 1:1 접촉이 시작된 것이다.

돈을 빌려서라도 에어컨을 달고 싶었던 이번 여름을 생전 집단생활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3,4살의 아이들과 아우성 속에서 지내야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식사시간과 낮잠시간이었다. 식사시간이면 꼭 국을 얹지르는 아이, 먹여주지 않으면 한 손갈도 먹지 않는 아이...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는, 참견하고 고쳐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 틈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밥그릇은 다 비웠는데 배 속은 허전하고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했다. 그리고 낮잠시간이면,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선배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자문을 구해보고 싶은 그 심정을 하루하루 미루면서 놀이방 일과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공포의 그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 더위에 날 따라 낮잠을 자준 우리 아이들이 용한지도 모른다. 근 한달은 낮잠시간마다 프로그램에서 낮잠시간을 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마도 그런 육체적, 정신적 중노동도 없을 것이다. 업어야 자는 아이, 울면서 자는 아이, 꼭 밖에서 혼자 자는 아이, 아니 절대 잘 수 없다는 완강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이... 그러나 이제는 낮잠시간에 잠이 안와도 누워있는 예의 정도는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다.

아이들과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몸은 말할 수 없이 힘든데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해져서 보담이를 데리고 바람을 쏘이러 나가는 것이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었다.

예전에 아이들과 지낼 때는 밤중까지 회의하고 아침부터 아이들과 지내도 이렇게 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속 깊이 느껴지는, 그리고 보고싶은 얼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혼자라는 느낌이, 마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 그냥 수다라도 떨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다는 것이 사람을 참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철이 늦게 들은 것일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부럽고 그리워진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이제는 당진 촌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도 친구와 좋은 동료라 생기리라 기대하면서 새해를 기다려본다.

■ 탁아계 풍향

서울지역 언어치료 교육실(정식기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또래에 비해 말이 늦거나 발음이 불확실한 아이들이 간혹 있다.

0-6세 사이에 전반적 발달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이럴 때에는 전문기관의 진단과 치료를 통해 정상아동과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지역의 언어교육(치료)실은 다음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지 역	언어치료교육사	전 화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590-1610
	채인영 신경정신과	522-7575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441-5001
	성내과언어치료실	475-2364
	주몽재활원	427-9734
	성내복지관	478-2554
송파구	서울중앙병원	224-3708
	김선미 신경정신과	408-0712
	한국어린이육영회 언어치료실	425-1674
동작구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841-2077
	정신지체인복지관	846-1569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이빈후과	760-2791
	한강성심병원언어치료실	633-9111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789-1255
동대문구	동대문적십자봉사회관	252-3158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언어치료실	962-7411 (교2722)
도봉구	국립재활원언어청각실	906-9081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재활원	361-7561
	이화대학교 언어청각센터	312-9656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438-2691
	김동현 신경정신과	545-3203
강남구	이효경 신경정신과	517-0471
	하상장애인복지관	451-6000
노원구	삼성의료원 언어치료실	3410-2835
	이상희 신경정신과	951-0270
강서구	백상신경소아정신과	696-0913
구로구	백상신경소아정신과	686-6449
성동구	성동장애인복지관	299-0701
	정립회관	446-1237
경기도	삼육재활센터	0347) 61-3636
	아주병원 언어치료실	0331) 219-5740

세계공룡대전

실제 크기의 공룡50여점을 당시 상황과 똑같이 재현하는 <세계공룡대전>이 미국, 푸에르토리코, 대만에 이어 한국에서도 열린다.

일시 : 1994년 12월 20일 - 1995년 2월 12일

월-금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9:00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별관

전시내용 : 다이노니쿠스 /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 이구아노돈 / 유프로케

팔루스 / 바이아사우루스 알의

부화 / 테라노돈 / 6천5백만년

이상된 실제 화석들 등

입장료 : 어린이 8,000원, 학생 9,000원,

어른 12,000원, 영아(3세이하)무료

단체(25명 이상) 25%할인

예매처 : 조흥은행 수도권지역 지점

문의전화 : 501-1421

방통대, '95 유교과 입학전형

방송통신대학교 '95학년도 유아교육과 입학생 선발계획 및 전형기준안이 확정됐다.

신입생 지원서 교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는 1월 4일부터 14일 사이에 진행된다.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전형은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원감, 원장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실장,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없이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원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20%를 특별전형키로 했다.

유아놀이창작연구회

작품전시.창작놀이 강습

사단법인 유아놀이창작연구회(회장 유은희)는 매주 토요일 유아교사 토요강습을 실시한다.

오는 1월 5-24일에는 5개영역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교구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유은희 작품전시회 및 창작놀이 강습회를 1조에 이틀씩 4조로 나눠 개최한다.

준비물:색종이, 풀, 가위, 바늘, 실, 매직

참가인원:선착순 1백명 마감

회 비:4만원(교재, 중식, 간식 제공)

문 의:292-3273, 5608

지탁연 '95 겨울교사수련회 개최

매년 여름, 겨울 두차례 교사수련회를 통해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교사재교육의 시간을 가져왔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현숙)에서는 '95년 겨울교사수련회를 마련한다.

일 시 : 95.1.3-5 (2박3일)

장 소 : 부여 삼정유스호스텔

(고속터미널에서 도보 10분)

회 비 : 개인당 30,000원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여벌옷 및

기타 개인소지품

신간 안내

영유아총서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이론과 실무)

- 이석무 지음, 혜화당 판, 463쪽, 값 11,000원 -

영유아보육사업을 출간했던 혜화당에서 국내 최초로 영유아는 물론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총서: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을 출간하였다. 필자의 예리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아동보육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참신하고 알차게 담고 있어 보육관련자의 필독서로 충분하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아동보육의 발달과정과 보육의 종류, 원리 등을 간략히 고찰하고, 제2장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경영관리의 발달단계, 순환과정, 조직과 업무 등을 분석한 이후 보육정보센터의 위상정립을 위한 체계와 운영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사경영관리, 재무관리,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사무관리 등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아동보육의 기본원칙을 살펴본 이후 보육실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제5장은 보육경제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외국의 보육재정제도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다. 또한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보육재원의 적정배분에 관한 내용을 고찰, 제6장에서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단계별 보육수요 충족과 유형별 보육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보육사업 현장에서 보육사업의 경영경제를 취급하는 경영자와 보육실무를 다루는 종사자도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2월 구비 도서/자료 목록>

한국영유아보육학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 추계 학술대회」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 남녀고용평등 심포지움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 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비용과 자녀양육 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이론과 실무)」
 / 이석무 씀, 혜화당 펴냄
 지방화시대 보육사업발전과 영유아보육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제10호
 /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국민학교 학교급식율 38.2%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동화읽는어른 31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유아교육신문 94.12.19
 기독교신보 94.11.26
 노동자신문 94.11.25
 기독교청년의료인회보 94.11월호
 /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들소리신문 94.11.27
 서울시민신문 94.11.23
 해피타임즈 94.11.23
 노동자신문 94.11.29
 제주여성 '94 가을호 / 제주여성회
 서울시민신문 94.11.30
 들소리신문 94.12.4
 현장 소식지 제8호 / 극단 「현장」
 해피타임즈 94.11.30
 노동자신문 94.12.6
 「참여연대」 준비1호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환경통신 제8호
 / 내일을 위한 지역환경연구소
 여성건축가 22호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민주여성 제17호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자신문 94.12.13
 들소리신문 94.12.11
 가정상담 94.11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시민신문 94.12.7 / 서울특별시
 한국여성연구회 회보 제40호
 / 한국여성연구회
 학부모신문 94.12.5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주간 해피타임즈 94.12.7
 노동자신문 94.12.9
 통일샘 5호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산돌소식 제15호 / 산돌노동문화원
 개혁정치 제5호 / 민주개혁정치모임
 시민체육 94.12 / 서울특별시 체육회
 주간 해피타임즈 94.12.14
 주간 대학 94.12.14
 들소리신문 94.12.18

온누리탁아방, 햇살농이방, 싹싹이농이방,
 어린이사랑방, 해송아기둥지에서 희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이론과 실무)」 3권을 저자 이석무씨가 본 연합회에 기증하셨습니다.

본 연합회에 각종 발간 도서, 회보 및 자료집을 보내주시는 여러 분(단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영세 유치원
보육시설 전환 가속

전국 사립유치원 중 임대시설로 운영하는 등 영세한 규모 유치원의 대다수가 운영난에 견디기 힘들어 보사부가 관장하는 보육시설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5일 보사부가 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시켜 오는 '97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 민간운영을 돕기로 하는 등 획기적 조치 발표에 영향받은 것이다.

이 발표를 듣고 임대시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설립자, 원장들은 「그렇지 않아도 원비의 현실화가 요원한 실정에 보사부 조치에 주저할 겨를도 없게 됐다」며 서둘러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보사부는 발표에서 앞으로 3년간 전국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 7천5백90곳을 증설, 민간설립의 경우도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무상지원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영세 유치원 설립자들이 이 조치에 환영의사를 표하는 이유는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을 피해 보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보사부의 이 발표는 영세유치원의 감소에 가속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월간유아 94년 12월호에서 발췌>

- 여성평화의 집, 송년잔치

지난 12월 1일 장충동 흥능갈비 3층에서는 [여성평화의 집] 건물 입주단체 실무자들간의 송년잔치가 있었다.

이날 60여명의 여연 소속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옥 이사장의 인사말과 회원간 인사, 단체 소개 및 유선간사의 사회로 흥겨운 오락시간을 가졌다.

- 서울시 보육위원회 열려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보육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본 연합회 최현숙 회장도 참석하였으며, 서울시 교재·교구비의 물품목록표가 배포되기도 하였다.

사람들

* 축하합니다.

구로어린이집 전직교사이신 권혜진씨가 12월달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 이전했습니다.

광주 도담도담아기등지가 지난 12월 10일부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새주소는 수련회 자료집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여러분, 축하드려요.

연합회 일지

11/29 지방아동교육분과 회의
편집회의

여연대표자회의

11/30 자활합숙준비모임

12/ 1 여성평화의 집 송년잔치

수련회준비위 모임

6 지방지역대표자회의

8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9 수련회 장소 답사

10 광주 도담도담아기등지 이전식
(최 회장 참석)

수련회 준비위 모임

12/13 서울경인지역 아동교육분과

14 영아탁아소모임

여성평화의 집 운영이사회

15 총회준비위 모임

16 수련회 준비위 모임

편집회의

여연 대표자회의

20 지방 아동교육분과

21 재정감사

22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수련회 준비위 모임

23 서경자활대표자회의

여연 정사위

교육연구부 모임

27 확대조특위

서울경인 아동교육분과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임, 수익사업, 물품교환 등의 정보를 실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찬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어린이집이나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손도손애기방(안산- 영아교사) 0345)494-9588
다우리어린이집(구로- 영아교사) 02) 854-2897

칫솔 판매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칫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세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할 신입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전, 현직교사나 기타 소식지, 탁아활동에 관심있는 자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희망자는 연락으로 신청하세요.

(담당 황미혜)

전체 자활가 겨울합숙

여름에 이어 전체 자활가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겨울합숙을 마련합니다.

많은 자활가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문의는 황미혜 문화홍보부장에게)

때: 95년 2월 9-11일(목-토, 2박3일)

장소: 강촌

회비: 개인당 15,000원

♥ 인형을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정성껏 모은 인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곳은 연락주세요. (지방 가능)

정정현(동국대학교 경영학과)

032)578-1275, 883-0997

호출 015-356-3861

백세주를 판매합니다

연합회 수익사업으로, 약재가 첨가된 건강민속주, 백세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께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판매가 : 17,000원(6병입)

◆ 유모차나 보행기를 급히 구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유모차나 보행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새터어린이집(867-8608)이나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터어린이집 남미영

아동 가방과 출석부를 나눠드립니다.

파랑새교구에서 기증받았던 물품중 아동가방과 출석부가 남았습니다.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에서는 연합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에서

* 여러 계층의 아이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문제를 함께 고민하려 했던 “우리네 아이들”코너는 이번 호를 끝으로 정리합니다.
보다 많은 소재 발굴과 노력으로 폭넓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송되는 소식지가 간혹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소식지의 얼굴을 이쁘게 해주세요.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의 표지사진을 공모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에서나 각종 행사를 이용해 찍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사진공모에 응해주신 어린이집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은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 새 식구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집부에서는 “우리네 아이들”의 내용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애정을 투자할 신입 편집회원을 모집합니다.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의 전, 현직 교사나 기타 보육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이들의 참여 바랍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구독 : 김이남님
1년 구독 : 임원선님
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문혜옥님, 유복림님, 그리고 교육훈련원장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신 분께서는 주소확인을 위해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는 온라인 입금 후 본 연합회 사무국에 연락하여주세요.

* 중앙회비를 내지 않으신 회원 어린이집에서는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원찬 함성으로 밝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0,000원 1년 구독 20,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뒤편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4년 12월 27일